

1 장, 바울: 매력적인가 아니면 역겨운가?

A. 주제(Thesis).

- 바울을 옳바로 이해하려면 바울서신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바울의 진정한 편지들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 신비주의자였으며,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신비체험이 그의 신학과 삶을 결정짓는다.
- 바울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급진적 사상(radical theology/ideology)을 지녔던 유대인이었다.

B. 문제점(Problems).

- 바울이 노예제도, 반유대주의, 여성혐오, 동성애반대를 주장했는가?
- 바울에 대한 평가가 각양각색—그 이유는? 소위 바울작품이라고 여겼던 13 개 서신의 내용과 신학이 크게 다르다. (+ 사도행전의 바울이해)
- 예) 권세에 복종(롬 13:1-7)=>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침묵; 독일 기독교인들이 히틀러 제국을 정당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

C. 논점(Argumentation).

1. 카톨릭의 바울과 개신교의 바울

- 대부분 개신교의 바울 이해가 후기 작품에 의해 형성. 특히 성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에서 출발하여 안셀무스(Anselm, 1033-1109)의 대속론(代贖論)과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칭의론 영향 (은총 grace/율법 law, 신앙 faith/행위 works 의 대조)=> 요한 칼뱅(John Calvin, 1509-64),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91).
- “예수, 하나님, 성서에 관한 교리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확신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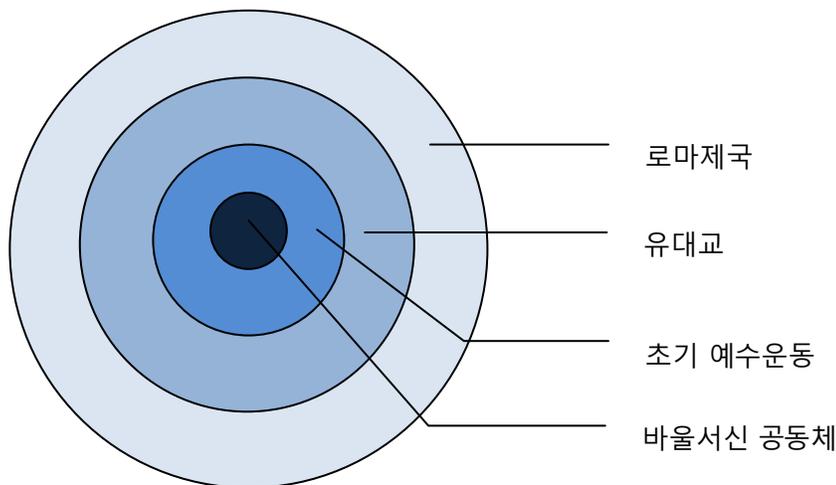
2. 바울 새로 만나기

- 방법론=> “주류(mainline) 신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것”(22)으로 성서를 역사적 산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 존 마이어(John Meir)의 주장: 카톨릭, 개신교, 유대교, 무신론자 등 네 명의 학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서관에 감금된 상태에서 토론.
 - 한 사람 이상의 바울
 -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
 - 유대인 그리스도 신비주의자(Jewish Christ mystic)=> 바울의 메시지는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근거. Q. 이 체험을 어떻게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23)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까?
- 세 사람의 바울
 - 급진적 바울(Radical Paul). 바울이 쓴 편지(7 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 보수적 바울(Conservative Paul). 진정성이 불확실한 편지들(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 반동적 바울(Reactionary Paul). 목회서신(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가장 후기 작품으로 서기 100-120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 본래 바울과 반대되는 사상을 주입=> anti-Pauline.
- 그 외 '네 번째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려짐. 서신들과는 달리 이야기(narrative) 형식.

3.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

- 고대문서 연구의 기초는 당시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정황 속에서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바울은 예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서의 관심사), 당시 교회가 지녔던 특수한/구체적인 문제/질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
-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세주'—황제의 칭호—라고 선포한 것은 당시 로마의 제국신학을 직접적으로 맞받아친 것으로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음서의 예수운동과 초기의 역사적 바울의 신학적 입장이 일치한다. "우리 두 사람이 확신하는 것은 급진적인 바울은 급진적인 예수(radical Jesus)의 신실한 추종자였다는 사실이다(31).



4. 유대인 그리스도 신비주의자

- 신비주의는 하나님과의 연합(mysticism is union with God)이며, 신비주의자는 하나님과의 연합(union)/친교(communion) 속에 사는 사람이다(32).
 - 신비체험. 하나님, 신성한 존재/실재의 현존에 대한 생생한 황홀경 체험(ecstatic experience).
 -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1902). 신비체험이 연합(union)과 조명(illumination)에 대한 생생한 의식과 관련. 이 조명은 빛과 관련되어 있고, 흔히 환시(幻視, photism)를 동반. 또 다른 의미는 각성(enlightenment). 만물의 이치를 깨달음. 다른 눈/인식을 갖게 된다. (Q. 복음서의 장님이 눈 뜬 이야기). 붓다는 "각성한 자"(the enlightened one).

-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은 바울이 신비주의자였음을 보여준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 (환시, 환청. 사도행전 9 장, 22 장, 26 장) Cf. 예수의 경험(막 1 장)과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막 9 장). 공통점?
- 바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절 이후의 예수, 곧 부활한 그리스도. 사도 계보에 속함(고전 15:3-8). 그 후 Pharisaic Jew 로부터 Christian Jew 로 변신/회심(conversion)=> 생각/사조의 전환. (see. 용어정리, "회개").
- 소명을 깨달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소명을 위임받았다고 믿음(갈 1:13-17).

D. 평가(Critique) 및 생각해 보기

- 바울에 관한 주류 신학교의 가르침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썼다.
- 보그와 크로산은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 신비주의자였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이런 기초를,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견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흔히 바울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예수의 사도로서의 그의 소명과 메시지가 부활절 이후의 예수에 대한 그의 신비체험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채로 글을 써왔기 때문이다"(41) 라고 밝힌다. 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의 신비체험이 그의 삶과 신학/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평범한 언어—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말—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경험이 예수의 경험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기

1. 바울의 신비체험—유대인 그리스도 신비주의자—이 주는 교훈은? (환시, 환청)
2. 복음서의 예수와 7 개 바울서신 속의 "급진적" 바울이 갖는 공통점은?